

山东大学

二〇一六年招收攻读硕士学位研究生入学考试试题

科目代码 362 科目名称 朝鲜语翻译基础

(请将所有试题答案写在答题纸上, 写在试题上无效)

一、把下列汉语词汇翻译成韩国语 (每个词汇 1 分, 共 15 分)。

1. 恐怖主义
2. 周边外交
3. 垄断
4. 阿根廷
5. 谷歌
6. 欧盟
7. 皮划艇
8. 大阪
9. 高科技产业
10. 靖国神社
11. 隐形战斗机
12. 股市
13. 沙尘暴
14. 文化观光资源
15. 贫富差距

二、把下列韩语词汇翻译成汉语 (每个词汇 1 分, 共 15 分)。

1. 벤처기업
2. 국내총생산
3. 칸 영화제
4. 입양어린이
5. 문화산업

6. 르네상스
7. 예금 수익률
8. 국회국방위원회
9. 남북통일비전
10. 반덤핑
11. 단군신화
12. 야당
13. 향찰
14. 스튜어디스
15. 오리무중

三、把下面的汉语文章翻译成韩国语 (每个文章 30 分, 共 60 分)

1. 9月11日, 韩国教育部公布了文理科综合型教育过程改革方案, 计划从2018年开始在学校教育过程中推行这一方案, 并在2021年高考时正式施行。“文理科综合型教育”意味着文理分科制度的取消, 因此引起广泛关注。此次文理科综合教育过程改革主要将在高中教育过程中得到体现。改革方案中将国语、数学、英语、社会、科学等5门科目定为共同科目。此外, 学生们还可根据本人前途方向选修“选择科目”。这一改革方案也是为了培养既关心人文社会又精通科学技术的“综合性人才”。韩国教育部与国家教育过程改革研究委员会在12日就这一改革方案举行听证会, 听取韩国社会各界意见。

2. 未来十年的中国将是怎样一幅图景呢? 中国将成为在世界经济发展中举足轻重的国家, 虽然经济增长速度将稍低于上个十年, 但经济发展的质量将大大提高, 并将拉长中国经济持续发展的周期; 将成为全球市场规模增长最快的国家, 中国经济将迎来消费带动发展的黄金时期, 国内消费需求将接过投资和出口的接力棒, 成为经济增长的重要引擎; 将继续推进工业化进程, 在制造业产值位居世界第一位的基础上, 实

现现代化和信息化融合发展，工业化进入中后期甚或完成工业化进程。中国还面临着诸多问题和挑战，从经济大国迈向经济强国将面临着诸多压力和两难选择，只有走出有中国特色的大国崛起之路，才能为世界发展作出更大贡献。

四、把下面的韩国语文章翻译成汉语（每个文章 30 分，共 60 分）

1. 학생 여러분,

한국과 중국은 수천 년의 역사를 함께 해오면서 다양한 문물과 사상을 교류해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공유하는 것이 많고, 문화적으로도 통하는 데가 많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1992 년에 수교한 지 약 20 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우호협력의 발전 속도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동안 교역액은 무려 40 배나 늘었고,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비행기와 선박이 하루에 백편이 넘습니다. 양국 공히 약 6 만명의 학생들이 서로 유학을 하고 있는데, 이곳 칭화대에도 1,400 여명의 한국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 국민들은 어려서부터 삼국지와 수호지, 초한지 같은 고전을 책이나 만화를 통해서 접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중국에 관광 오게 되면, 마치 잘 아는 곳에 온 것처럼 친근감을 느끼곤 합니다.

저도 오래 전에 소주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하늘에는 천당이 있고, 땅에는 소주, 향주가 있다는 말이 정말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곳 저곳이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양국이 불과 20 년만에 이렇게 급속도로 가까워질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렇게 문화적인 인연이 뿌리깊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감대야말로 정말 소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2.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중국이 국내 중소기업의 기회의 땅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한·중 경제협력 확대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공략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 주석의 방한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양국 경제협력 확대를 가속화하며 대 중국 수출액 증가에 탄력을 붙여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교착상태였던 한·중 FTA 가 3 개월 만에 1 단계 협상을 마무리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포화상태인 국내 시장에서 판로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중국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이유 중 하나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향후 한중 간 수교 이래 가장 우호적인 관계가 지속되면서 교역과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중소기업이 중국을 기존 생산기지에서 소비시장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시장 진출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